

李白의 自薦 書信*

이해원**

<目 次>

1. 이백의 산문에 대하여
2. 본문 번역 문장에 대한 분석
 - 1)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 2) 『與韓荊州書』
3. 본문 번역 및 주석
 - 1)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번역 및 주석
 - 2) 『與韓荊州書』번역 및 주석

1. 이백의 산문에 대하여

이백의 문장은 賦 8首와 「雜題四則」1首를 포함하여 모두 67편이다. 『全唐文』卷374에서부터 卷350까지 賦를 포함하여 李白의 문장 67편을 수록하였다. 王琦注 『李太白全集』에는 「比干碑」와 「雜題四則」을 포함하여 모두 72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比干碑」는 『全唐文』에 李翰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李白의 散文은 書, 表, 序, 記, 頌, 贊, 碑銘, 祭文, 辭賦와 같은 문체 형식이 모두 있고, 李白의 생활 각 방면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며, 호방하고 웅장한 풍격을 지녔다.

李白의 문장은 書, 序, 贊, 頌과 碑銘이 가장 많다. 李白의 書體散文은 모두 6편이 있다.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는 壽山의 名義를 빌려 자신의 政治理想을 밝힌 편지이고, 「爲趙宣城與楊右相書」은 趙悅을 대신하여 칼을 권 내용의 편지이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부 교수. hhaewonn@korea.ac.kr

며, 「與賈少公書」는 永王 李璘의 幕府에 들어갔을 때의 자신의 뜻을 펼친 편지이고, 「上安州李長史書」·「與韓荊州書」·「上安州裴長史書」는 地方官에게 알현을 구하여 出仕를 찾으려는 自薦의 편지이다. 이러한 산문은 명확한 目的과 動機가 있어 이백의 出仕를 통한 政治 理想의 실현을 밝힌 個性的인 문장이다. 이 가운데 「與韓荊州書」, 「上安州裴長史書」, 「爲宋中丞自薦表」,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上安州李長史書」 등의 문장은 공통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각 작품은 서로 다른 표현수법을 사용하면서 이백이 自薦하며 자신의 재주, 특별히 문학적 재능을 표명하면서 登用되기를 기대하는 목표를 암시하기도 하고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爲宋中丞自薦表」와 「上安州裴長史書」는 이미 번역이 되었고¹⁾, 나머지 가운데 두 편을 선택하여 번역과 주석을 달았다.

이백은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서 自然에 가깝고 神仙 道教를 좋아하며 동시에 강렬한 出仕의 뜻을 지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천지를 흔들 큰일을 도모하여 공을 세운 뒤에 물러나 隱逸하겠다고 자신을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인생설계는 이상주의 색채가 강한데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끊임없는 '治國 平天下'의 濟民意識을 지닌 儒家와 이에 대비되는 '功成身退'의 道家를 겸비한 思想이 본문에 잘 암시되어 있고, 「與韓荊州書」에서는 才德을 겸비한 인재를 발탁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지방관 韓朝宗에게 自薦으로 공을 세운 毛遂처럼 자신도 自薦하며 자신의 정치 포부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이백의 정치 이상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장들이다.

1) 황선재 역주, 『이태백명시문선집』, 339-367쪽.

2. 본문 번역 문장에 대한 분석

1)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李白이 開元 15년(727년)에 壽山을 대신하여 孟少府에게 답하며 質疑하는 형식으로 보낸 편지이다. 書信이기는 하지만 移文이라고 하여 公文의 일종이다. 孟少府는 孟贊府 혹은 그 사람을 가리킨다.²⁾ 그러나 이 사람은 억척이며 이백이 자신의 政治理想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낸 허구일 가능성도 있는데 하나의 표현수법으로 볼 수 있다.

본문은 이백 자신의 정치 포부를 밝힌 선언서와도 같은데 安陸의 北壽山에 隱居할 때 지은 작품으로 擬人手法으로 壽山의 입을 빌려 孟少府의 質責에 回答하며 이백의 攻成身退의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었고, 또 壽山을 통해 孟少府와의 問答形式으로 이백 자신의 어진 덕을 드러내어 조정에서 일할 그릇으로 당장 세상에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全文은 비록 山에 의탁하여 대신 말을 하였지만 이백의 自白과도 같은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어 孔稚圭의 「北山移文」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移文은 원래 古代 官公署에서 서로 주고받는 公文이다. 劉勰의 『文心雕龍』에 “移란 易이다. 風俗을 바꾸기 위해 指命을 발령하면 백성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³⁾라고 하여 백성들을 귀순시키는데 移文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移文에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상대방에 대해 反駁하며 자신을 辯護하는 글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백은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答信의 형식을 택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포부를 표현했을까?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가 맹소부가 이백 자신을 질책한 것에 대해 답장을 쓰는 편지라면 맞대응하는 1인칭 서술을 선택했어야 마땅한데, 제3자인 壽山의 神靈의 입을 빌렸고 또한 해학적인 표현도 갖추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규명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규명을 통해 이백의 移文書의 창작 배경과 목적 및 동기

2) 牛寶彤, 『李白文選』, 26쪽.

3) “移者, 易也. 移風易俗, 令注而民隨者也”, 劉勰, 『文心雕龍』 卷5 「檄移」.

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백은 당시 유행하던 『문선』(文選)에 수록된 孔稚圭의 「北山移文」을 읽고 그 문장의 영향을 받아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를 지었다.

李白과 동시대 시인 杜甫는 “익히 『문선』의 문리를 터득하기에 힘쓰다”⁴⁾라고 하였다. 南朝 때 梁나라 昭明太子가 엮은 『문선』은 당시에 광범위하게 읽혔는데, 初唐 때 이미 각종 판본이 출현하였다. 顯庚 3년(656년)에 李善이 그의 판본을 조정에 올렸고, 開元 6년(718년)에 呂延祥도 五臣注本을 증명하여 『문선』은 朝野의 文人들의 重視를 받았고 詩 창작 학습의 표본이 되었다. 杜甫는 그의 시 「覃山人隱居」에서 “남극의 노인이 스스로 별을 가지고 있다면, 「북산이문」은 누가 새긴단 말인가?”⁵⁾라고 하였으니, 이백도 분명 『문선』을 읽었을 것이다. 晚唐 때 사람 段成式은 “이백은 세 번 『문선』을 숙독하였다”⁶⁾라고 하였고, 朱熹도 “이백이 평생 『문선』의 시를 배웠기 때문에 그의 시는 좋다”⁷⁾라고 하여 이백은 『문선』에 수록된 「北山移文」을 읽었고, 안육에서 은거하며 맹소부의 질책을 받고 그 답신을 쓸 때 「北山移文」의 문체와 내용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백은 그의 시 「北山獨酌寄韋六」의 5행에서 “내가 이 산에 머물다보니”⁸⁾라고 하여 이백이 北山에 은거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마지막 연에서 “바람 먼지 속에 떠돌고 있는 그대를 생각하며, 오만하게 그대가 스스로를 비웃게 하네”⁹⁾라고 하여 아직도 세속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韋氏를 조롱하면서 이백은 자신의 은일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北山移文」의 이백에 대한 영향은 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 나타난 이백의 攻成身退 思想이다. 이백의 攻成身退 사상은 「北山移文」에

4) “熟精文選理”, 楊倫 箋注, 『杜甫鏡銓』 卷之九 「宗武生日」.

5) “南極老人自有星, 北山移文誰勒銘”, 이영주·강성훈·홍상훈 譯解, 『完譯杜甫律詩』, 896쪽. 南極老人은 南極星을 가리키지만, 詩에서는 隱者를 비유함.

6) “前後三擬詞選”, 段成式 撰, 杜聰 校點, 『酉陽雜俎』, 卷12 「語資」, 79쪽.

7) “李太白終始學選詩, 所以好”, 『朱子語類』 卷120.

8) “紛吾下茲嶺”, 이영주·임도현·신하운 역주, 『이태백시집』(4), 121쪽. 紛은 어조사로 뜻이 없고, 茲嶺은 이 고개, 즉 北山을 가리킴.

9) “念君風塵遊, 傲爾令自哂.” 風塵 속에서 名利를 추구하는 韋氏가 자기 신세를 스스로 비웃게 만들 것이라는 뜻임.

드러난 孔稚圭의 隱逸觀念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와 「北山移文」과의 傳承관계의 규명을 통해서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의 창작 배경과 목적 및 동기를 밝혀낼 수 있고 또한 이백의 은일과 출사의 태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南朝 때 齊나라의 文人 孔稚圭의 「北山移文」은 周顒이 지금의 南京 북동쪽의 鍾山, 즉 北山에 隱居하다가 후에 약속을 어기고 詔令에 응하여 出仕하여 海鹽令이 되었는데 임기를 마치고 도성으로 가는 길에 다시 北山에 돌아와 은거하려 하므로 孔稚圭가 신령의 뜻을 빌려 公文을 돌리게 하고 못 오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첫머리에 보면 “鍾山の 精靈과 草堂의 神靈이 안개로 하여금 驛路로 달려가 移文을 鍾山の 등성이에 새기게 하였다”¹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周顒의 접근을 막기 위해 山神靈이 안개에게 公文을 돌리게 하였다는 것인데, 관리끼리 주고받는 公文書의 일종인 移文은 北山の 山神靈이 周顒에게 보낸 公文이다.

「北山移文」에 나타난 隱逸思想은 權勢 있고 地位 높은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名利에 욕심이 없는 당시 사회 풍조를 반영하였다. “그가 이 北山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巢父를 밀어낼 듯, 許由의 기세를 끌어내릴 듯하였고, 百世를 업신여기고 王侯도 멸시하였다.”¹¹⁾ “지금 보니 周顒은 蘭草 따를 풀어 던지고, 俗世의 먼지가 묻은 갓끈을 매었구나!”¹²⁾ “그는 隱者가 아니면서 거짓 草堂에서 살았고, 北岳에서 함부로 隱者들이 쓰는 頭巾을 쓰고 다녔다.”¹³⁾라고 하였는데 가짜 隱者 周顒에 대한 비판이 바로 隱逸思想이다. 孔稚圭는 北山の 山神靈의 뜻을 빌려 가짜 隱者를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는 동시에 진짜 隱逸이란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은일 행위는 “천금을 초개같이 여겨 돌보지 않고, 만승의 천자의 자리도 신발짝을 버리듯 하여야 한다”¹⁴⁾는 俗世超越的인 내용을 포함한다. 孔稚圭는 가짜 隱者 周顒에 대한 비판을 통해 隱逸을 빌려

10) “鍾山之英, 草堂之靈. 馳煙驛路, 勒移山庭”, 蕭統 選, 李善 注, 『文選』 卷43 「書」.

11) “其始至也, 將欲排巢父拉許由, 傲百世蔑王侯.”

12) “今見解蘭縛塵纓.”은자가 난초를 허리에 차는 것은 고결한 지조를 상징함.

13) “竊吹草堂, 濫巾北岳.”

14) “芥千金而不眴, 徙萬乘其如脫.” 芥는 티끌이란 뜻으로 하찮게 여겨 거들떠보지 않다, 兩은 애꾸눈을 말함.

名利를 구하는 행위는 虛僞이며 不道德하다고 개탄하였다. 이렇듯 「北山移文」에서 隱逸에서 出仕로 전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隱逸觀念이 이백에게 영향을 끼쳐 이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理想 실현의 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백의 理想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안정시키는 “濟蒼生, 安黎民”이다. 이러한 그의 理想과 抱負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아직 功도 세우지 않았는데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서 먼저 功成身退를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백 자신이 의도적이고도 교묘하게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의 창작 배경, 목적 및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孟少府의 壽山에 대한 질책을 反駁하는 것이다. 莊子의 “작은 메추라기가 큰 봉새를 흠모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어 털끝만한 것이 태산과 필적할 수 있다”고 하는 相對主義의 道家 哲學 思想을 내세워 사물간의 大小의 차이를 부정하면서 은일의 정당성과 이와 관련 하여 은일을 빌려 출사를 하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隱逸과 出仕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중화시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어느 한쪽으로는 일방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본래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출사하여도 남에게 이백 자신이 榮利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기 않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孔稚圭와 다른 점이다.

셋째, 出仕가 榮利 추구의 개인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군주를 보필하여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백은 자신이 출사하려는 것은 蒼生 救濟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功名 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였다.

넷째, 功成身退를 표방하여 脫俗의 고결한 지조를 지닌 隱者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그러면서도 出仕를 한다면 이러한 出仕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군주를 보필하여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성신퇴의 근거와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에 나타난 이백의 功成身退 사상은 「北山移文」에 나

타난 속세와의 완전한 斷絶을 의미하는 隱逸觀과 완전히 일치하지도 반대의 입장도 아니어서 功을 이루기도 전에 身退를 먼저 말하여 功名 추구에 대해 功利的 색채를 약화시켜서 자신의 出仕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北山移文」이 채택한 檄移體와 假山靈之意의 표현 방식은 이백의 移文書와 동일하다. 神靈의 뜻을 빌려 자신의 인생 포부를 세상 사람들에게 宣言하는 방식은 효과 면에서 1인칭 방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인의 질책에 대항하는 맞대응식의 문체가 아닌 제3자의 중개를 통해 1인칭 서술 때의 직면 가능한 위험이나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더욱이 당시에 이백은 처음으로 安陸에 은일하였고 지명도가 낮던 시절이어서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감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성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끝에 「北山移文」의 표현방식을 빌려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를 지었던 것이다.

天寶 3년에 玄宗이 賜金還山 때도 長安을 떠나면서 功成身退를 다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백의 사람에 은일과 출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가 담고 있는 해학적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약화시키고 은일과 출사의 반복적 선택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백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얻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던 셈이다.

이백의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의 서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書信의 작성자는 淮南 小壽山이고, 전달자는 東峯 錦衣 雙峰, 즉 黃鶴이며, 수신자는 淮陽 孟少府이다. 書信內容은 壽山の 지라위차형세, 孟少府의 질책에 대한 회답, 李白이 志向하는 抱負에 대한 陳述, 李白의 不屈의 個性과 벼슬로 濟世하려는 포부, 功成身退의 政治理想, 壽山이 어진 선비를 양성한 장소라는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移文書는 寓言體 形式의 人生 宣言書와 같은 문장으로 移文書가 公文인 점을 감안하면 보통은 제1 인칭 서사구조를 가지는 반면에 제3자인 山을 빌려 山이 이백을 대신하여 말을 하고 또 동시에 이백의 이상을 밝히면서 이백의 인생목표가 드러나게 하였다.

내용에 의하여 전문은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淮南小壽山」에서부터 「何人間巫廬台霍之足陳耶」까지이다.

서신 관련 정보 설명, 작성자, 전달자 수신자 삼자간의 호칭, 또 壽山과 그 지맥인 大小鶴山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독립 사상의 작성자가 있고 靈의인 特性을 갖추었으며 사람의 뜻을 가진 鶴을 설명하고 그 鶴이 황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壽山の 神仙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인간세상의 神仙의 山임을 암시한다. 동시에 수산의 지리적 위치를 첨가하면서 수산이 天地의 자양분을 받아 수산이 精靈을 기르는 보물과 같은 곳임을 드러냈다.

두 번째 부분은 「昨於山人李白」에서부터 「亦何負於國家矣」까지이다.

壽山이 작은 산이고 유명하지 않으며 德도 없고 보물을 숨기고 어진 이가 은거한다는 질책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山은 국가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 어진 이를 기르고 보물을 잉태하는 중요한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회답이다. 일문일답의 형식을 통해 맹소부의 질책에 회답하고 있고 또 수산이 일찍이 세상에 없던 것을 몰래 숨기고 있고, 왕의 덕이 아직 더 널리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여상, 부열과 같은 인물이 하천과 골짜기에서 등용되었는데 이백 자신이 아직 등용되지 못한 것은 위정자들이 눈이 어두워 그들의 재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산이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은 「近者逸人李白」에서부터 「求我於此巖也」까지이다.

근래 배양한 어진 이는 이백 자신임을 제기하였다. 수산은 계속해서 이백의 영적인 특성을 묘사하면서 벼슬을 하면 보필할 재주를 펼치고, 은거를 하면 신선이 되겠다는 功成身退의 理想이라는 자신의 인생설계를 드러냈다. 시인은 제삼자를 통해 산이 대신 자신의 뜻을 말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아도취격의 일방적인 과시와 자랑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백은 여기에서 또한 강렬한 出仕의 의지를 표명하여 隱逸와 出仕의 세상 구제라는 선택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孟子』를 인용하면서 “막히면 홀로 몸을 수양하고, 통하면 겸하여 천하를 착하게 한다”(達則兼濟天下, 窮則獨善一身)라고 하였지만, “관중과 안영이 논한 바를 펼치고, 제왕의 계책을 도모해보며”(申管晏之談, 謨帝王之術)라고 진술하여 이백은 내심 隱逸과 出仕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거가 그의 인생에 유일한

理想은 아니다. 이백이 수산에 은거하여 神仙이 되는 방법을 배워 道를 구하려는 것은 표면상의 이유이고 명성을 높여서 관중과 안자처럼 제왕을 보필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문장구조상 1,2단은 허구이고, 3단은 실제에 대한 묘사로 표면적으로는 壽山의 孟少府와의 대담이 중심축이지만 山의 입을 빌려 壽山의 숭고한 지위와 天地 神靈을 모집하는 精妙를 나타내고 그 중간에 있는 李白을 부각시키며 표면적으로는 山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山의 포용력을 갖췄고 기묘하여 靈山임을 인식시키고 수련하기 위해 속세를 벗어날 수 있는 장소란 사실을 드러나도록 하였다.

詹鐸은 “壽山의 입을 빌려 시인의 입신출세의 태도를 나타냈고, 그 가운데 ‘兼濟天下와 事君榮親’이라는 出仕의 願望을 나타내면서도 功成身退한 후에 ‘浮五湖, 戲滄州’의 속세를 초탈하려는 사상도 드러냈다”¹⁵⁾고 하였다. 牛寶彤은 “맹소부는 이백이 이 작고 유명하지도 않은 곳에 은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백은 수산의 입을 빌려 맹소부의 질책에 회답한 것이다. 이백은 분명히 ‘匡君濟世’의 政治抱負와 ‘攻成身退’의 行動綱領을 나타냈다. 이백이 평생 추구하고 싸웠던 것은 이 문장에 확립한 열렬한 政治理想이었다”¹⁶⁾라고 하였다.

李白은 정치인에게 알현을 구하는 문장에서 不屈의 개성을 드러냈다. 본문은 그의 정치 청사진을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목표를 설정하였다. “管仲과 晏嬰이 논한 바를 펼치고, 제왕의 계책을 도모해보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제왕을 보필할 수 있다면 천하를 크게 안정시키고 한결같이 맑게 다스리고자 한다”라는 포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두루 제후를 찾아다니고 卿相들을 만나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펼쳐 보이고 포부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懷才不遇했던 南朝 때 시인 鮑照의 영향을 받은 「行路難」 첫째 시를 보면,

금 향아리 맑은 술 한말에 일만 냥이요,
옥쟁반의 귀한 음식 만전의 값어치지만.

15)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974쪽.

16) 『李白文選』, 26쪽.

잔 멈추고 젓가락 던져 차마 먹지 못하고
 칼 빼어 동서남북 둘러봐도 마음은 막막하네.
 황하를 건너려니 얼음이 강을 막고
 태항산을 오르려니 온산이 눈으로 덮였네.
 한가로이 푸른 시내에 낚시를 드리울까,
 갑자기 다시 伊尹처럼 발탁되는 꿈이나 꺾일까,
 가는 길이 어려워라! 가는 길이 어려워라,
 여러 갈래의 길, 지금 어디가 편안할까?
 바람 타고 물결 깨트리는 그런 때가 오리니,
 구름 끝에 돛을 올려 푸른 바다 건너가리라!¹⁷⁾

이운(伊尹)처럼 배를 타고 해와 달 주위를 맴돈 꿈을 꾸 뒤 은(殷)나라 탕왕(湯王)을 만나볼까?”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낚시와는 전혀 상관없고 낚싯배와 관련하여 재상이 된 옛 현인들의 고사로써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2) 「與韓荊州書」

李白이 개원 22년(734년)에 韓荊州에게 알현을 구하며 천거를 부탁하는 편지이다. 韓荊州는 韓朝宗이다. 당시에 그는 荊州大都督府 長史 겸 襄州刺史였다. 『新唐書』 『韓朝宗傳』에 “韓朝宗은 後進을 알아보고 발탁하는 것을 좋아하여 일찍이 崔宗之, 嚴武를 조정에 천거하여 당시 선비들이 모두 그를 중시하고 귀의하려고 하였다”¹⁸⁾라고 하였다. 본문 중에 “공께서도 嚴協律(嚴武)을 추천하셨는데, 그는 비서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崔宗之, 房習祖, 黎昕, 許瑩 등을 추천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다는 평판으로 유명했고, 어떤 사람은 청렴결백하다고 칭찬을 받았습시다”라고 하였다. 韓朝宗이 후진 양성에 뛰어나다는 명성이 出仕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나있었기 때문에 이백도 희망을 안고 적극적으로 韓朝宗에게 자신을 추천하였고, 또한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이백은 여러 차례 제후들이나

17) 金樽清酒斗十千，玉盤珍羞直萬錢。停杯投箸不能食，撥劍四顧心茫然。欲渡黃河水塞川，將登太行雪滿山。閑來垂釣碧溪上，忽復乘舟夢日邊。行路難！行路難！多岐路，今安在？長風破浪會有時，直掛雲帆濟滄海。

18) 宋祁，歐陽脩撰，『新唐書』 『韓朝宗傳』，4274쪽.

조정의 卿相에게 알현을 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韓朝宗을 찬양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제로 韓朝宗이 선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인재를 천거한 것에 대한 찬양을 통해 韓朝宗이 자신을 천거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암시하고 있다. 본문은 알현을 구하는 편지인 동시에 이백의 집안 배경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귀중한 사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문장이다.

본문은 自薦 형식으로 화두에서부터 천하의 논객들이 韓朝宗의 명성에 감화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백 자신의 구상을 내놓았다. 천거, 발탁이란 단어를 한 글자도 거론하지 않고도 자신을 알아주어 추천해주길 바라는 심정을 암시하였다. 개인의 집안배경을 거론하면서 초점을 본인의 재주와 학문, 담력과 식견, 경력에 집중시켰고, 또 편지 중에 개인의 학식과 재주 그리고 문장능력을 나타내었다. 韓朝宗에 대해 공적, 지위, 학식, 천거 등 다방면에 걸쳐 찬양하면서 이백은 자신에 대한 韓朝宗의 천거를 기대하였다.

내용으로 볼 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白聞天下談士」부터 「卽其人焉」까지이다.

韓荊州의 명성과 자신의 천거를 구하는 기대를 서술하였다. 당돌하게 천하의 논객들의 입을 통해 韓荊州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난 명성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개인의 말로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칭송하기보다 오히려 더 믿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 어진 이를 예의와 겸손으로 대하는 주공과 그를 같이 열거하며 韓荊州의 재주 있는 선비를 사랑하고 아끼는 고상한 기풍으로 천하의 호걸인 재들이 서로 다투어 귀의하여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것을 찬양하였다. 이백의 이 편지 자체의 목적은 천거를 구하는 것인데 시인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毛遂의 典故에 비유하여 韓荊州에게 자신이 천거를 구하는 기대를 나타내었고 언어 중에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결코 초라하거나 구걸하는 모습은 아니다.

둘째 부분은 「白隴西布衣」부터 「安敢不盡於君侯哉」까지이다.

자신의 집안과 포부를 소개하였다. 李白은 스스로를 隴西의 평민이라고 하였고, 비록 명확하게 명망 있는 집안이며 조상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실증적인

사료적 가치는 있어 그 후에 말한 “楚와 漢 땅 사이를 유랑하면서”, “지방관들에게 천거되기를 기대하고”, “조정 의 고관대작들을 찾아다녔던” 30년 동안의 경력을 결산하면 결국 ‘유랑’이라는 결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인생경로 때문에 王公大人의 칭찬을 얻었다고 하면서 韓荊州에 대해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고자하는 기대와 흥금을 토로하였다.

셋째 부분은 「君侯制作侔神明」부터 「敢效微軀」까지이다. 韓荊州의 추천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백은 韓荊州의 “문장은 조화를 부리는 듯하고, 학문은 하늘과 인간의 심오한 도리를 궁구하였다”라고 한 후에 韓荊州가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의 재주를 펼쳐보이게 하여 품평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 시대인 東漢 때의 王允(137-192), 山濤(205-283)와 동시대인 唐代의 嚴武가 인재를 추천한 예를 韓荊州와 함께 거론하였는데, 천거된 사람이 재주를 갖추었고 청렴결백하여 칭찬 받고 천거한 사람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는 韓荊州에게 의탁하길 원하여 추천을 구하였다.

「예전에 양양에서의 유람을 기억하며 소부 마거에게 바치며(憶襄陽舊游贈馬少府巨)」에서

높은 모자에 좋은 검차고,
한형주께 길게 읊을 했네.
거기서 그대와 이별하니
지금 옛날 유람이 그림네.¹⁹⁾

馬巨는 濟陰의 縣尉로 이백과 襄陽에서 같이 유람하였다. 이 시는 천보 10년(751년)에 옛날 양양에서 같이 유람한 현위 馬巨를 다시 만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첫 행에서 이백이 韓荊州에게 알현을 구하였을 때 길게 읊을 하며 예의를 갖춘 행위는 본문에서 “길게 읊만 한다고 해서 물리치지 말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魏顥의 「李韓林集序」에

19) 高冠佩雄劍，長揖韓荊州。此地別夫子，今來思舊游。

또 (李白이) 韓荊州에게 길게 읊을 하였고 형주에서 연일 술을 마시다가 韓荊州의 수레를 이백이 망가뜨렸는데 韓荊州가 그를 용서했다. 李白이 말하였다. “술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니, 韓荊州가 크게 기뻐했다.”²⁰⁾

라고 하였다.²¹⁾ 李白이 자신의 시문을 魏顥에게 주며 그에게 자신의 문집 편찬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魏顥가 말하는 李白이 “韓荊州에게 길게 읊을 하였다”라는 말은 이백 자신이 친히 魏顥에게 직접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단락은 「且人非堯舜」에서부터 「惟君侯圖之」까지이다.

이백은 韓朝宗에게 시를 바쳐 재차 자신의 시를 품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밝히고 겸손하게 자신의 재능이 보잘것없다고 하면서도 추천을 기대하는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3. 본문 번역 및 주석

1)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번역 및 주석

「수산을 대신하여 맹소부의 글에 답하며」

회남도의 소수산은 동봉(東峯)의 황학에게 편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가서 양주의 맹공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데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저 수산은 대자연의 기운을 품고 먼 옛날에 태어났으며, 익 별자리에 속한 초 땅에 붙어있어 형주(荊

20) 長揖韓荊州, 荊州延飲, 白誤拜, 韓讓之, 白曰酒以成禮, 荊州大悅.

21) 魏萬은 魏顥로 號가 王屋山人인데 이백을 흠모하여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천보 13년(754년)에 廣陵, 지금의 揚州에서 이백을 만나 함께 金陵을 유람하며 헤어질 때는 시를 주고받았다. 이백은 「왕옥산으로 돌아가는 왕옥산인 위만을 보내며」(送王屋山人魏萬還王屋并序)에서 “내가 먼 이별을 너무나 아쉬워하며, 아득히 멀어지니 마음이 슬퍼지네. 황하가 만약 끊어지지 끊는다면, 백발이 되도록 길이 그리워하리라”(我苦惜遠別, 茫然使心悲, 黃河若不斷, 白首長相思)라고 노래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깊은 영원한 우정을 읊었다. 위호는 「금릉에서 한림학사이자 하늘에서 유배 온 이백에게 답하며」(金陵酬翰林謫仙子)의 마지막 구에서 “지금 이별은 먼 이별이 아니니, 가을에 신선 산에 오길 바라네”(此別未遠別, 秋期到仙山)라고 읊어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깊은 우정을 노래하였다.

州) 와 형주(衡州) 의 먼 곳까지 세력이 미치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만고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득히 먼 은허수와 함께 하늘의 길을 따라 봉우리들이 만들어지니 수산은 북두칠성에 의지하여 산봉우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정령의 기운이 쌓여서 신선이 은거하고 있으며, 수후의 보물 구슬을 생산할 수 있고, 화씨벽을 숨기고 있어 천지의 정화가 무궁무진하고 자연 조화의 창조의 신비를 지니고 있다. 이리하여 수산은 신선이 사는 곤륜산에 견줄 만하고 낭풍산에 가까이할 수 있으니, 인간세상의 무산, 여산, 천태산과 괘산을 언급할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어제 제가 隱者 이백이 은거하는 곳에서 公의 격문을 읽어보니, 公은 이백의 기이하고 빼어난 재주를 힐책하며 천하의 명산들을 크게 칭송하였소. 저의 작은 산은 유명하지 않고 덕행도 없으니 칭찬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公의 말을 볼 때, 어찌 公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公께서는 無名이 천하의 시작이요 有名이 만물의 어머니라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제가 설령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공이 어찌 큰 이치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를 지내느라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요리사는 제사에 쓸 희생을 죽이고 제멋대로 나무와 풀을 훼손하면서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 경전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귀한 것이겠습니까! 또 달인 莊子는 높은 경지의 훌륭한 말을 했는데 작은 메추라기가 큰 봉새를 흠모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어 털끝만한 것이 泰山과 필적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볼 때 어찌 大小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당신이 각 山에 나라의 보물과 어진 사람들이 숨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자 임금의 길가에 방을 붙이거나 산에 불을 질러 어진 선비를 구하려 하였는데, 어떤 곳을 방문해도 인재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공의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주가 등극하면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데, 포도와 비취를 공물로 바쳐지고 河圖와 洛書가 상서로운 영험이 있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을 설치하듯 법을 제정하여 강제로 천하의 어진 인재를 불러 모으고, 아주 먼 곳에서까지 공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하늘엔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고, 땅에는 보배가 감춰져 있지 않지만, 군주의 교화는 모든 오랑캐에 위엄을 떨치며, 봄은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정말로 임금의 은덕이 예외 없이 천하에 베풀어졌다면, 어

찌하여 어진 선비와 진귀한 보물이 깊은 산이나 동굴 속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길가에 방을 붙이거나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은 왕의 은덕이 널리 천하에 베풀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姜太公은 현명하셨고, 傅說은 덕행이 빛났기 때문에 姜太公은 渭水 강가에 살고, 傅說은 우虞나라와 虢나라의 암자에 은거하였지만 끝내 武丁이 꿈에 본 얼굴의 형체를 그리게 하고 부열을 만나 등용하였고, 周文王이 자기를 보좌할 사람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실제로 太公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天道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치하였으니, 어찌 찾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인물이겠습니까? 姜太公은 낚싯대를 드리우다가 등용되어 군대 깃발을 쥐고 殷나라를 멸망시켰고, 傅說은 흙을 다지는 나무판자를 내던지고 재상에 발탁되어 각각 周文公을 보좌하고 武丁을 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비로소 암자 동굴이 어진 이를 기르는 장소이며 숲이 우거지고 샘물이 솟는 곳이 보물을 숨기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같은 山들이 어찌 나라를 저버렸겠습니까?

요즈음 隱者 이백이 蛾眉山으로부터 왔는데, 대자연으로부터 얼굴과 몸체를 받았습시다. 자신에게 비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남에게서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았습시다. 천하를 준다 해도 받지 않았던 巢父와 許由 이래로 오직 어진 사람은 李白 한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虬龍이 휘감고 거북이 쉬듯이 이 北壽山에 은둔하였습니다. 綠綺라는 거문고를 타고 푸른 구름에 누워, 옥구슬 줍으로 양치질 하며 仙藥을 먹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더욱 젊어지고 진정한 기운이 넘쳐흘러, 칼에 의지하며 하늘 밖으로 나아가 扶桑나무에 활을 걸어놓고 천하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적막한 우주로 나아가 이득히 먼 하늘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백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며 친구에게 말하길, “떠날 수 없다. 나는 그대와 관직에 오르면 천하를 구제하고, 관직을 잃으면 자신의 한 몸을 닦아야 한다. 어찌 仙境의 보랏빛 안개를 마시고, 푸른 소나무 그늘에서 쉬며, 鸞새와 鶴을 타고 虬龍을 몰아 하루아침에 날아올라 方丈과 蓬萊山의 神仙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 道教 책을 접어두고, 비파를 궤짝 속에 처넣은 다음 管仲과 晏嬰을 얘기하며, 帝王의 계책을 도모해보고,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제왕을 보필할 수

있다면 천하를 크게 안정시키고 하나같이 맑게 다스리고자 한다. 임금 섬기는 道가 이루어지고 아버이를 영광되게 하는 의로운 일을 힘써 다한 후에는 陶朱公 范蠡와 留侯 張良처럼 함께 五湖를 떠돌며 신선이 산다는 滄州에서 노니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숲속에서 은거하는 것이 어찌 중요하지 않을까? 반드시 산속에서 충명함을 배양할 수 있었고 대자연의 음양의 기운을 보충 받았으며 만물의 경치를 빌려 문장을 짓는 재주를 발휘하였다. 비록 일찍이 산의 영기를 받았고 이제는 몸이 쇠약해졌지만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깊은 산중에는 설령 杳과 枯木 귀신 그리고 독사와 호랑이가 있어 먼 곳까지 날뛰지만 그들을 황야로 내쫓고 그것들의 사지와 몸통을 찢고 그림자조차 없애버려 집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한 맑은 바람을 보내어 문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밝은 달이 비추기를 기다리겠다. 이것은 어진 선비를 기르는 마음이며 사실은 天道의 보답인 것이다. 맹소부여! 맹소부여! 저를 너무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내년 봄에 이 산속의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²²⁾

淮南小壽山謹使東峯金衣雙鶴²³⁾銜飛雲錦書²⁴⁾於維揚²⁵⁾孟公足下曰, “僕包大塊²⁶⁾之氣, 生洪荒²⁷⁾之間, 連翼之分野²⁸⁾, 控荊衡²⁹⁾之遠勢. 盤薄³⁰⁾萬

22) 이 문장은 開元 15年(727年)에 李白이 安陸에서 재상을 지냈던 許圜師의 손녀와 결혼하고 四方으로 유람할 때 지은 작품임. 孟少府의 문장에서 李白은 德이 없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李白은 壽山을 人格化하여 맹소부를 질책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답고 웅장한 壽山을 李白 자신의 懷才不遇한 처지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원대한 政治理想을 피력했음. 壽山은 安陸縣 西北쪽에 있고, 전설에 산 아래 사는 사람이 백세까지 산다고 하여 수산이라고 하였다고 전함. 移文은 檄文과 같은 말로 분명하게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탄핵하는 글을 말함.

23) 淮南은 安州 安陸을 말함. 『新唐書』 卷41 「地理志」 第31에 “안주 안육향은 회남도에 속한다”(安州安陸鄉, 隸屬淮南道)라고 하였음. 鶴은 본래 흰색이지만 여기에서는 黃鶴을 가리킴.

24) 銜은 가슴에 품어 간직함을 뜻함. 飛雲은 날아감, 錦書는 편지를 말함.

25) 淮揚은 揚州를 가리킴.

26) 『莊子』 「齊物論」에 “말하자면 자연이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한다”(夫大塊噫氣, 其名爲風)라고 하였고, 成玄英의 疏에 “대괴란 조물주의 이름으로 또한 자연을 일컫는다”(大塊者, 造物之名, 亦自然之稱也)라고 하였음.

27) 洪荒은 混沌과 蒙昧한 상태란 뜻으로 먼 옛날을 가리킴.

28)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에 “초 땅은 익과 진의 분야에 속한다”(楚地, 翼軫之分野)

古, 邈然星河³¹⁾, 憑天霓以結峯, 倚斗極而橫嶂.³²⁾ 頗能攢吸霞雨, 隱居靈仙.³³⁾ 產隋侯之明珠³⁴⁾, 蓄卞氏之光寶³⁵⁾. 罄宇宙之美, 殫造化之奇.³⁶⁾ 方與昆侖抗行, 閩風接境³⁷⁾. 何人間巫廬台霍之足陳耶?³⁸⁾

昨於山人李白處見吾子移文, 責僕以多奇, 鄙僕以特秀, 而盛談三山五岳之美.³⁹⁾ 謂僕小山無名無德而稱焉. 觀乎斯言, 何太謬之甚也? 吾子豈不聞乎? 無

라고 하였고 王琦의 注에 “지금의 (중국) 南部로 江夏, 零陵, 桂陽, 武陵과 長沙와 漢中 汝南郡 모두가 楚의 分野에 속한다”고 하였음. 옛날에는 하늘의 28宿 가운데 翼과 軫의 두 별자리에 對應되는 곳이 荊楚의 땅이었으므로 荊楚를 ‘翼軫之分野’라고 불렀음.

29) 荊衡은 荊州와 衡州 혹은 荊山과 衡山을 가리킴. 荊山은 지금의 湖北省 南漳縣 에, 衡山은 지금의 湖南省 衡山縣에 있음.

30) 盤薄은 磅薄과 같은 뜻으로 廣大함 혹은 雄大함을 말함.

31) 邈然은 아득히 멀을 뜻하고, 星河는 은하수를 말함.

32) 天霓와 같은 뜻으로, 자연의 길을 말함. 『莊子』 「齊物論」에 “자연의 길로 모든 것을 조화시키고, 변화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것이 天壽를 다하는 것이다”(和之以天倪, 因之以曼衍, 所以窮年也)라고 하였음. 斗極은 北斗星을 말함.

33) 攢吸은 모이다란 뜻으로 쌓다, 霞雨는 아침노을과 비란 뜻으로 自然 精靈의 氣, 靈仙은 神仙을 각각 말함.

34) 隋侯之明珠는 보물과 같은 진주를 말함. 『呂氏春秋』 「十二紀」 「貴生」에 “隋侯의 귀중한 구슬로 천 길 높이에 있는 참새를 맞춰 잡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것인데, 이는 사용하는 도구는 귀중하데 비해 구하는 목표는 보잘 것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隋侯의 구슬이란 귀중한 물품을 상징함. 『淮南子』 「覽冥訓」의 注에 “隋侯가 몸이 잘린 뱀을 발견하고는 약을 발라 연결하였다. 후에 그 뱀이 강 가운데에서 큰 구슬을 입에 물고와 恩德에 보답하였는데, 그 구슬을 隋侯의 구슬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음. 壽山은 隋珠와 같은 보물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가리킴.

35) 卞氏之光寶란 卞和의 보물과 같은 구슬을 말함. 『韓非子』 「和氏」에 楚山에서 옥돌을 발견한 和氏가 厲王과 武王에게 옥돌을 바쳤지만 가짜를 가지고 속인다고 오해를 받아 두 발을 잃은 후에 文王이 즉위하고 和氏가 옥돌을 품에 안고 우는 것을 보고 文王이 그 이유를 묻자, 和氏는 寶玉을 돌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벌을 내린 것이 슬프다고 말하자, 文王이 사람을 시켜 그 돌을 다듬게 하여 보배를 얻었으므로 이 를 和氏의 玉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음. 이 和氏가 바로 卞和임. 壽山은 和氏璧과 같은 진귀한 보물을 숨기고 있음을 가리킴.

36) 罄은 다하다의 뜻으로 天地의 精華를 모두 거두어들였음을 말함. 殫은 힘을 다함을 말하고, 造化는 자연계의 창조를 말함.

37) 『水經注』 卷1 「河水」에서 인용한 『昆侖說』에 “崑崙山에는 세 층이 있는데 제일 아래층에는 樊桐, 일명 板桐이고, 두 번째 층은 玄圃라고 하는데 일명 閩風이라고 하며, 제일 위층은 層城, 일명 天庭인데 上帝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였음. 閩風山에는 神仙이 산다고 함. 抗行은 견줄을 말함.

38) 巫는 巫山, 廬는 廬山, 台는 天台山, 霍은 霍山을 가리킴. 陳은 陳述함, 언급함을 말함.

39) 山人은 隱士를 말하고, 吾子は 孟少府에 대한 존칭인데 子는 고대 중국에서 남자에 대한

名爲天地之始，有名爲萬物之母.⁴⁰⁾ 假令登封禮祀⁴¹⁾，曷足以大道譏耶?⁴²⁾ 然皆損人費物，庖殺致祭，暴殄草木，鐫刻金石，使載圖典，亦未足爲貴乎! 且達人莊生常有餘論，以爲尺鷃不羨於鵬鳥，秋毫可並於太山.⁴³⁾ 由斯而談，何小大之殊也?

又怪于諸山藏國寶隱國賢，使吾君勝道燒山，披訪不獲，非通談也.⁴⁴⁾ 夫皇王登極，瑞物昭至，蒲萄翡翠以納貢⁴⁵⁾，河圖洛書以應符⁴⁶⁾，設天網而掩賢，

존칭이었음. 三山五嶽은 천하의 명산을 뜻함.

- 40) 『老子』 제1장에 나오는 말임. 孟少府가 壽山이 유명하지 않다고 하는 비난한 말에 대해 “유명하지 않다”의 뜻의 無名을 『老子』로부터 인용하여 반박한 것임.
- 41) 禮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함. 『周禮』 「春官」 「大宗伯」에 (大宗伯은) “禮祀로 하늘의上帝에게 제사를 지내고, 實柴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를 지낸다”(以禮祀祀昊天上帝, 以實柴祀日月星辰)라고 하였음. 實柴란 실제의 희생물을 말하는데 뿔나무 위에 희생물이나 玉帛을 태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늘에 알렸음. 『漢書』 「武帝紀」에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登封泰山)라고 하여 登封은 泰山에 올라감을 뜻함.
- 42) 曷은 何와 같은 뜻이고 譏는 책망이나 비난함을 뜻하며, 大道는 大道理를 말함.
- 43) 莊生은 莊子, 餘論은 훌륭한 의론이란 뜻의 高論을 말함. 鷃鵬는 鷃鵬과 같은데 메추라기와 봉새를 말하며, 메추라기는 작고 봉새는 크므로 사람의 식견이나 도량이 넓고 크고 좁거나 작은 것을 비유함. 『莊子』 「逍遙遊」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봉이라고 한다. 등은 태산과 같고 날개는 하늘에 드리는 구름과 같다.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개를 쳐서 빙글빙글 돌며 구만 리를 올라가 구름 위에 솟구치면 푸른 하늘을 이고 비로소 남쪽으로 향해 南冥으로 간다. 메추라기가 이를 비웃으며 ‘저것이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것일까? 난 힘껏 날아올라도 불과 몇 자 못 올라가고 내려와 쑥 풀 사이를 날아다니거늘. 이것도 가장 높이 난 것인데 저것은 어딜 가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한다. 이것이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다”(有鳥焉, 其名爲鷃. 背若泰山, 翼若垂天之雲. 搏扶遙羊角而上者九萬里. 絕雲氣, 負青天, 然後圖南, 且適南冥. 斥鴳笑之曰, 彼此奚適也? 我騰躍而上, 不過數仞而下. 翱翔蓬蒿之間. 且亦飛上之至也. 而彼且奚適也? 此小大之辨也)라고 하였음.
- 44) 君은 皇上을 가리킴. 勝道는 교통의 요충지 이외에도 공시문을 붙여 어진 사람을 구함을 말함. 『晉書』에 孫惠가 南嶽의 隱士 秦秘之라고 속이고 편지로 東海王 越에게 干 하여 越이 편지를 살펴보고 榜을 길가에 붙여 그를 구하려고 하여 孫惠는 越을 만나 越이 그를 記室參軍에 임명하여 문장을 기초하게 하는 등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였음. 燒山은 산에 불을 놓다의 뜻으로, 『三國志』 注에서 인용한 『文士傳』에 曹操가 阮瑀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다가 산으로 들어가 숨자, 曹操가 사람을 시켜 산에 불을 놓아 阮瑀를 얻어 후에 그를 군대의 격문 작성 일을 맡았다고 하였음.
- 45) 王琦의 注에 “葡萄는 西域에서 생산되고 翡翠는 南越에서 생산되는데 이 두 가지를 거론한 것은 먼 곳에서 공물로 바쳤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음.
- 46) 전설상의 伏羲 시절에 龍馬가 黃河에서 출현하였는데 등에 河圖를 짊어졌고, 神龜가 洛水에서 출현하였는데 등에 洛書를 짊어졌다고 전함. 伏羲는 이 圖와 書를 근거로 8종류의 符號를 그려 八卦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연과 사회현상의 변화를 상징하였음. 應符는 상서로

窮月竈以率職, 47) 天不秘寶, 地不藏珍, 風威百蠻, 春養萬物. 王道無外, 何英賢珍玉而能伏匿于巖穴耶?48) 所謂勝道燒山49), 此則王者之德未廣矣. 昔太公大賢, 傳說明德,50) 棲渭川之水, 藏虞虢之巖, 卒能形諸兆朕, 51) 感乎夢

은 징조에 들어맞아 영험함을 말함.

- 47) 天網은 曹植의 『與楊德祖書』에서의 “나의 왕 曹操가 하늘의 그물을 설치하여 문학가들을 초빙하고, 여덟 방향의 문학에 재주가 있는 선비를 망라하니, 지금은 인재들이 이 魏나라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吾王于是設天網以該之, 頓八紘以掩之, 今悉集茲國矣)에서 유래하였는데, 該는 ‘該’字와 같은 뜻으로 갖추다의 뜻이니 조조가 천하의 먼 곳에 있는 문학가들을 모두 다 초빙함을 말함. 『淮南子』 『墜形訓』에 “구주의 언저리는 사방 천리이다. 구주 밖이 팔인인데 그것도 사방 천리이다. 팔인 밖에 팔평이 있는데 그것도 사방 천리이다”(九州之外, 乃有八殯, 亦方千里, 八殯之外, 而有八紘, 亦方千里)라고 하였는데, 八紘의 紘은 큰 새끼줄을 말하며, 고대 전설에 대지는 바다 위에 떠 있고 神인이 여덟 개의 큰 새끼줄로 대지의 여덟 방향에 고정시켰으므로 八紘이라고 하였다고 하며, 극히 먼 곳을 가리킴. 頓은 整頓하다의 뜻임. 掩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남을 덮치거나 체포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초빙하다의 뜻임. 窮은 “끝까지 다하다” 顏延年の 『宋郊祀歌』에 “서쪽 끝 먼 곳에서 손님이 왔다”(月竈內賓)라고 하였는데 月竈은 月窟과 같은 뜻으로 서쪽의 맨 끝인 西極의 땅이란 뜻이므로 가장 먼 지역을 말함. 率職은 ‘조공하다’, ‘공물로 바치다’의 뜻임.
- 48) 王道는 仁義로 天下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霸道の 반대말임. 無外는 가장 큰 범위를 말하여 여기에서는 군주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천하에 다 베풀어졌음을 말함. 『春秋公羊傳』 『僖二十四年』에 “天王이 宮을 나와 鄭 땅에 사니 왕의 은혜가 천하에 다 베풀어졌음을 말한다”(天王出居鄭, 王者無外)라고 하였음. 伏匿은 숨다는 뜻.
- 49) 춘추시대 隱者 介子推 故事인데, 晉文公 重耳가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를 극진히 모셨던 충신으로 그에 관한 민간 전설이 많은데 예를 들면 ‘割股奉君’, ‘功不言祿’, ‘攻成身退’ 등이 있음. 晉文公이 介子推를 哀悼하기 위해 그가 불에 타죽은 3월 5일을 火禁日로 정하고 전국에 불 사용을 금지하고 찬 음식만을 먹도록 명하였다는 전설이 확대되어 지금의 寒食節이 되었다고 함. 개자추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春秋左氏傳』 僖公24년의 기록인데, 여기에는 허벅지 살을 베어 晉文公에게 먹여 살렸거나 介子推가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기록은 없음. 『春秋左氏傳』에는 晉文公이 망명했을 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포상하려고 하였는데 介子推는 賞을 요구 하지 않았고 晉文公도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는데, 介子推는 말이란 몸을 꾸미는 것으로 몸을 장차 숨기려고 하는데 晉文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는 것은 出世하기를 구하는 것이 되므로 거절하고는 모친과 함께 숨어 살다가 죽었고, 晉文公은 그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綿上을 介子推에게 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훌륭한 사람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였음. 『呂氏春秋』 『介立』의 기록과 『史記』 『晉世家』의 기록도 『春秋左氏傳』과 비슷한데, 『史記』의 기록에는 介子推가 綿上, 지금의 山西省 介休縣 동남쪽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晉文公은 綿上 산속 주위를 그에게 封土로 주었고, 그 산을 介山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음. 漢代 『說苑』 『復恩』의 기록에 “龍이 천하를 周游하다가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중 한 마리 뱀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주었다”라고 하였음. 介子推가 스스로 불에 타죽었다는 기록은 『莊子』 『盜跖』에 보이는데, 군주가 된 후에 文公이 介子推를 배반했으므로 介子推는 화가 나서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꺾어 불타 죽었다고 하였음.
- 50) 太公은 周代 呂尙으로 出仕 前에 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후에 文王과 武王을 보좌하여 殷

나라 멸망에 功을 세운 뒤에 齊에 封해져 지혜와 용기를 모두 갖춘 인재였음. 『戰國策』 「秦策」에 “요가가 말하길, ‘태공망은 제나라에서 아내에게 쫓겨난 지아비였고, 조가에서 썩은 고기를 팔던 백정이었다’라고 하였다”(姚賈曰, 太公望齊之逐夫, 朝歌之廢屠)라고 하였으며, 『史記』 「齊太公世家」에는 “‘呂尙은 가난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낚시질로 周나라 文王 西伯이 자신을 만나줄 것을 구하였다’(呂尙蓋嘗窮困, 以漁釣奸周西伯)라고 하면서 西伯이 사냥을 나가려고 점을 치니 호랑이나 곰을 잡을 것이 아니고 霸王을 보좌할 사람을 얻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사냥을 나가 渭水 북쪽에서 呂尙을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우리 선대의 태공 때부터 이르기를 ‘장차 성인이 주나라에 올 것이며, 주나라는 흥성할 것이다’라고 하였소. 선생이 진정 그 분이 아십니까? 우리 태공께서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소라고 하고는 그를 太公望이라고 부르며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師가 되게 하였다”(自吾先君太公曰, 當有聖人適周, 周以興. 子真是邪? 吾太公望子久矣. 故號之曰, 太公望, 載與俱歸, 立爲師)라고 하였음. 또 傳說은 商王 武丁의 大臣으로 죄를 지어 傅巖 지방에서 제방을 쌓을 때 흙을 다지는 일을 하는 노예였는데, 武丁에게 발탁되어 임용된 후에 宰相까지 지내며 國政을 맡아 國勢를 强盛하게 하였음. 僞古文에 속하는 『尙書』 「說命」(上)에 “임금이 글을 지어 고하기를, ‘꿈에 하느님이 나에게 훌륭한 보필을 보내주셨으니, 그가 나를 대신하여 말하게 될 것이오’라고 하자, 그의 형상을 생각해내어 그의 모습을 그려 가지고, 온 천하에서 두루 찾게 하였다. 열이 부암 땅 들판에서 흙을 다지고 있었는데 모습이 비슷하였다. 이에 그를 세워 재상으로 삼고, 임금은 그를 곁에 두었다”(王庸作書以誥曰, 夢帝賚予良弼. 其代予言. 乃審厥象, 俾以形, 旁求于天下. 說築傅巖之野, 惟肖. 爰立作相, 王置諸其左右)라고 하였음. 또 『孟子』 「告子」(下)에 “순임금은 밭을 갈다가 등용되었고, 부열은 담을 쌓다가 천거되었다”(舜發於畎畝之中, 傅說舉於版築之間)라고 하였는데 부열은 제방을 쌓는데 방망이로 흙을 다지는 일을 하였음. 『漢書』 「英布傳」에 “항우가 제나라를 정벌하는데 몸소 관축을 짊어졌다”(項羽伐齊, 身負版築)라고 하였는데 版築의 版은 흙을 양쪽에서 끼고 쌓는 판자, 築은 흙을 다지는 방망이로 모두 담이나 벽을 쌓는데 사용하는 도구임.

- 51) 虞虢은 周文王 때 건립한 제후국으로 지금의 山西 平陸과 河南의 三門峽 일대에 있었음. 兆朕이란 太公과 傅說 두 사람이 각각 文王과 武丁의 꿈에 나타난 후에 重用되었음을 말함. 楚辭 『離騷』에 이 두 사람에 대해 읊었는데, “여망이 칼을 두드리며 울리다가, 주문왕을 만나 천거를 받았네”(呂望之鼓刀兮, 遭周文而得舉)라는 구절에 대한 王逸의 『章句』에 “태공이 조가에 이르러서는 가난하여 칼을 두드리며 고기를 팔았는데 결국은 위수 강가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 문왕이 성인을 얻는 꿈을 꾸고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여상을 만나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는 그를 國師에 임명하였다”(太公至於朝歌, 道窮困, 自鼓刀而屠, 遂釣於渭濱, 文王夢得聖人, 於是出獵而遇之, 遂載以歸, 用以爲師)라고 하였는데 앞 注에서 인용한 『戰國策』 「秦策」의 기록처럼 “썩은 고기를 파니” 고기 썩는 냄새가 심하여 고기가 팔리지가 않게 되자, 할 수 없이 “결국은 위수 강가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임. 또 “부열은 부암에서 달구질하다가, 무정에게 등용되어 신임을 받았다네”(說操築於傅巖兮, 武丁用而不疑)라고 하는 구절에 대한 王逸의 『章句』에 “부열이 우연히 죄를 얻어 벌을 받고 부암에서 흙을 다지는 일을 하게 되었다. 무정이 어진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꿈에 성인을 얻는 꿈을 꾸고는 그 얼굴 모습대로 찾아다니다가 부열을 얻었기 때문에 부열은 재상이 되었고 그의 도를 이용하여 나라가 흥성하게 되니 무정은 은나라의 고종이 되었

想. 此則天道闇合, 豈勞乎搜訪哉?⁵²⁾ 果投竿詣魔⁵³⁾, 捨築作相⁵⁴⁾, 佐周文, 讚武丁, 總而論之, 山亦何罪? 乃知巖穴爲養賢之域, 林泉非秘寶之區, 則僕之諸山亦何負於國家矣?

近者逸人李白, 自峨眉⁵⁵⁾而來, 爾其天爲容, 道爲貌, 不屈已, 不干人, 巢由以來, 一人而已.⁵⁶⁾ 乃蚪蟠龜息, 遁乎此山.⁵⁷⁾ 僕嘗弄之以綠綺⁵⁸⁾, 臥之以

다”(傳說遭遇刑罰, 操築作於傅巖. 武丁思想賢者, 夢得聖人, 以其形象求之, 因得傳說, 登以爲公, 道用大興, 爲殷高宗也)라고 하였음.

- 52) 天道는 日月星辰의 運行規律을 말함.
- 53) 投竿이란 姜太公이 강물에 던져 넣은 낚싯대를 말하고, 魔는 군대에서의 지휘관인 대장의 깃발로 周文王 군대의 깃발을 말하며, 詣는 도달하디의 뜻이므로 投竿詣魔란 강태공이 낚싯대를 던져서 주문왕에게 이르게 하디라는 뜻으로 周文王과의 만남을 구하려는 행위를 말함.
- 54) 捨築作相이란 나무판자를 내던지고 宰相이 됨을 뜻하는데 傳說이 흙을 다지는 건축 공사 일을 하다가 武丁에 의해 제상에 발탁된 것을 말함.
- 55) 逸人은 隱士를 말함. 峨眉는 峨眉山으로, 李白이 靑少年 시절에 綿州의 昌隆에 살았는데, 峨眉山과 가까워서 開元 12년에 峨眉山을 유람하고 장강을 따라 夔門을 나와 洞庭湖를 지나 廬山에 오르고 金陵, 揚州를 경유하여 越中을 유람한 다음, 서쪽으로 雲夢을 유람하고, 襄陽을 지나 汝海의 나그네가 된 후에 安陸에 정착하였음.
- 56) 其는 대명사로 하늘을 말하며 대자연을 가리킴. 道는 우주자연의 본체를 말함. 『莊子』 「德充符」에 “道가 얼굴을 베풀어주었고, 하늘이 형체를 베풀어주었다”(道與之貌, 天與之形)라고 하였음. 道는 自然의 道理를, 天은 自然의 作用을 말하여, 宇宙自然이 인간의 얼굴과 몸체를 만들어주었음을 말함. 干人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뜻임. 巢由는 巢父와 許由로 堯임금 때 隱士인데 堯임금이 天下를 巢父에게 양보하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자, 許由에게 양보하였으나 역시 받지 않았음.
- 57) 左思 「吳都賦」에 “꼬불꼬불한 것이 마치 虬龍이 휘감고 있는 것 같다”(輪困虬翻)라고 하였음. 輪困은 꼬불꼬불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말함. 『說文解字』에 “규는 용의 새끼로 뿔이 없다”(虬, 龍子無角者)라고 하였음. 遁은 隱居함을 말하며, 龜息이란 말은 『抱朴子』 「對俗篇」에 보이는데, “『史記』 「龜策傳」에 ‘長江과 淮河 사이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거북으로 침대 다리를 받쳐두었고, 후에 구가 노인이 되어 죽어서 가족이 침대를 옮겼으나 거북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륙십년이 지나 음식을 하나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도 죽지 않았으니 보통 동물과는 같지 않게 오래 살았다. 신선들이 거북처럼 쉬는데 어찌 그 이유가 없겠는가?’(江淮間居人爲兒時, 以龜支床, 支後死, 家人移床而龜故生, 此亦不減五六十歲也. 不飲不食如此之久而不死, 其與凡物不同亦遠矣. 仙經象龜之息, 豈不有以乎!)”라고 하였음. 蚪蟠龜息이란 虬龍처럼 몸을 휘감고 잠복하고 있으면서 거북처럼 호흡함을 말하여 이백의 神仙의 道術을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한쪽으로는 脫俗의 인격을 비유하는 말임.
- 58) 晉代 傅玄의 「琴賦」序에 “제환공에게 호종, 초장왕에게 요양, 사마상여에게 녹기, 채옹에게 초미라는 거문고가 있었는데 모두가 명기였다”(齊桓公有鳴琴曰號鍾, 楚莊有鳴琴曰繞梁, 中世司馬相如有綠綺, 蔡邕有焦尾, 皆名器也)라고 하였는데 후에는 琴을 가리켰음. 전설에 司

碧雲，漱之以瓊液，餌之以金砂，⁵⁹⁾既而童顏益春，眞氣愈茂，將欲倚劍天外，掛弓扶桑。⁶⁰⁾浮四海，橫八荒，出宇宙之寥廓，登雲天之渺茫。俄而李公仰天長吁⁶¹⁾，謂其友人曰，吾未可去也。吾與爾達則兼濟天下，窮則獨善一身。⁶²⁾安能餐君紫霞，暎君青松，乘君鸞鶴⁶³⁾，駕君虯龍，一朝飛騰，爲方丈蓬萊之人耳⁶⁴⁾，此則未可也。乃相與卷其丹書⁶⁵⁾，匣其瑤瑟⁶⁶⁾，申管晏之談⁶⁷⁾，謀帝王

馬相如가 「玉如意賦」를 지었는데, 梁王이 이에 기뻐하며 綠綺 거문고를 下賜했다고 전함.
59) 瓊液은 玉液이고, 金砂는 仙藥을 말함. '餌'는 먹는다는 뜻으로, '弄', '臥', '嗽' 모두 동사로 사용되었음.

60) 阮籍의 詠懷詩 82首 가운데에 “굽은 활은 부상나무에 걸어놓고, 긴 칼은 하늘 밖에서 의지한다”(彎弓挂扶桑, 長劍倚天外)라고 하였는데, 扶桑은 태양이 뜨는 곳으로 태양은 君主를 상징하며, 李白은 「臨終歌」에서 “대붕이 날아 촌하를 떨치고, 힘에 겨워 중천에 꺾였네. 그 바람에 세상을 격동시키며, 부상에 놀다 옷소매가 걸렸네”(大鵬飛啊振八裔, 中天催兮力不濟. 餘風激兮萬世, 游扶桑兮掛石袂)라고 읊어 遊扶桑은 玄宗의 부름을 받아 長安의 궁으로 들어가 황제 곁에 있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시에서 대붕에 비견하여 자신의 高邁하고 俊逸한 뜻을 나타내었음. 병사들의 출정을 노래한 李白의 시 「發白馬」에서 “갈을 쥐고 연연 산에 올라보니, 번방의 봉화 줄지어 서있네”(倚劍登燕然, 邊烽列嵯峨)라고 하였고, 또한 적을 무찌르겠다는 기상과 승리를 격려하는 「登邯鄲洪波臺置酒觀發兵」에서 “홍파대에서 병사들을 바라보소서, 검을 쥐고서 옥문관을 바라보네”(觀兵洪波臺, 倚劍望玉關)라고 읊어 長劍은 李白의 功을 세우려는 政治抱負를 상징하는 말이지만, “활은 扶桑에 걸어놓고 갈은 하늘 밖에 있다”는 것은 昇天하여 神仙이 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었음. 임. 既而是 俄而와 같은 말로, 얼마 후의 뜻이고, 眞氣는 元氣를 말함.

61) 李公은 李白을 말함. 壽山 대신 대답하였으므로 李公이라고 하였음. 吁는 탄식함을 뜻함.

62) 『孟子』 「盡心」(上)에 “옛날 사람이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보태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나니, 막히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榮達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하는 것이다”(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고 하였음.

63) 紫霞는 하늘을 뜻하고 高潔함을 비유하는 말임. 『文選』 卷28 陸機의 樂府 「前緩聲歌」에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여 酒興이 다하니, 몸이 가벼워져 하늘로 승천할 듯하네”(獻酬既已周, 輕舉乘紫霞)라고 하였고, 「獻酬」은 『詩經』 「小雅」 「楚茨」 “술잔 주거나 받거나 하다”(獻酬壽交錯)에서 유래하였음. 청송은 사계절을 항상 푸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지조를 비유하는 말임. 李白의 「古風」 59首 중 20번 雜詩에 “그대에게 푸른 소나무 같은 마음 돌려하니, 노력하여 깨끗한 지조 보존하시게나”(勸君青松心, 努力保霜雪)라고 하였는데 青松과 霜雪은 같은 뜻임. 鸞鶴은 鸞鳥와 鶴이란 뜻으로 전설에 神仙이 타는 새로 알려져 있음. 南朝 宋나라 때 湯惠休의 「楚明妃曲」에 “네 필의 말이 난새와 학을 몰아, 신선들과 왕래하네”(驂駕鸞鶴, 往來仙靈)라고 하였는데, 鸞鶴을 神仙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함. 白居易 「酬趙秀才贈新登科諸先輩」에 “봉래산 가서 신선과 벗 삼길 흠모하지 마라, 도를 닦으면 저절로 날개가 몸에서 생겨나니”(莫羨蓬萊鸞鶴侶, 道成羽翼自生身)라고 하였음.

64) 方丈과 蓬萊 전설에 神仙이 사는 곳임. 『史記』 「封禪書」에 “(제나라의) 위왕, 선왕, 연나라의 소왕 때부터 사람을 바다로 보내 봉래, 방장, 영주를 찾도록하였다. 이 삼신산은 전설에

之術，奮其智能，願爲輔弼。使寰區大定，海縣清一，⁶⁸⁾ 事君之道成，榮親之義畢。然後與陶朱留侯，浮五湖，戲滄洲，不足爲難矣。⁶⁹⁾ 卽僕林下之所隱容⁷⁰⁾，豈不大哉？必能資其聰明，輔以正氣，借之以物色，發之以文章⁷¹⁾，雖烟花中

발해에 있다고 하는데, 인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신선들이 배가 닿을 것을 걱정하여 바람을 일으켜 배를 보낸다는 곳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며, 모든 선인들과 불사약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三神山者，其傳在渤海中，去人不遠。患且至則船風引而去。蓋嘗有至者，諸仙人及不死之藥皆在焉)라고 하였고, 『秦始皇本紀』에 “제나라 사람 서불 등이 상소문을 올려 말하길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봉래, 방장, 영주라고 하였다”(齊人徐市等上書，言海中有三神山，名曰蓬萊，方丈，瀛洲)라고 하였음.

- 65) 丹書는 道教에 관한 책을 말함. 李白은 道教를 信奉하였는데, 그가 出行할 때는 항상 仙藥이 주머니에 가득했고 道教 책이 광주리에 가득하였다고 전함.
- 66) 瑤瑟은 玉으로 장식한 비파를 말함. 南朝 宋 鮑照 『擬古』詩 가운데 7번째 시에 : “맑은 거울은 상자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졌고, 옥 장식한 비파는 거미줄이 쳐졌네”(明鏡塵匣中，瑤琴生網羅)라고 하여 시인의 품은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여 등용되지 못함을 나타낸 것임. ‘匣其瑤瑟’은 出世에 대해 超然한 자세를 취함을 말함.
- 67) 管晏之談이란 管子와 晏嬰이 말한 道理로 天下의 霸權을 쥌 수 있는 방법을 말함. 『史記』 「管晏列傳」에 太史公의 말에 管仲은 齊桓公을 도와 霸者로 이름을 떨치게 해주었고, 또한 『孝經』 「事君」을 인용하면서 “임금의 장점을 길러주고, 그 결점을 바로잡아주어야만 상하가 서로 친목하게 되는 것이다”(將順其美，匡救其惡)라고 하였으며, 晏子는 임금에게 諫言할 때는 조금도 임금의 얼굴빛에는 상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조정에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進思盡忠，退思補過)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論語』 「述而」에서 孔子가 말한 “부를 만일 구할 수 있다면 말채찍을 잡는 자의 일이라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라고 한 말을 빌려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 있다면 그를 위해서 채찍을 드는 일이라도 기뻐서 나는 안자를 흠모할 것이다”(假令晏子而在，余雖爲之執鞭，所忻慕焉)라고 하였음.
- 68) 寰區는 寰宇와 같은 뜻으로 天下，즉 人間세상을 말함. 『後漢書』 「逸民傳序」에 “매미가 허물을 벗고 시끄러운 속세로 나와, 스스로 人間세상 밖으로 날아가 버려, 지혜와 교묘함으로 꾸며 헛된 이익만을 좇는 자와는 다르도다!”(蟬蛻羶埃之中，自致寰區之外，異夫飾智巧以逐浮利者乎!)라고 하였음. 海縣은 바다의 뜻으로 神州，즉 中國을 말함. 『樂府詩集』 「燕射歌辭」 「隋宴群臣登歌」에 “황제가 曆書를 밝히니, 어진 은혜가 바다에까지 두루 미치었다”(皇明御歷，仁深海縣)라고 하였음. ‘海縣清一’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맑다는 뜻으로 천하가 태평하다는 뜻임.
- 69) 陶朱는 春秋時期 때의 范蠡를 말하는데, 『史記』 「越王句踐世家」에 越王 句踐을 도와 吳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越王이 富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배를 타고 五湖를 유람하다가 陶 땅에 이르러 朱公이라 칭하고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음. 留侯는 漢高祖 劉邦의 謀臣 張良을 말하는데, 『史記』 「留侯世家」에 漢나라가 天下를 統一한 후에 留 땅에 봉해져서 萬戶侯가 되었지만 死狗烹을 두려워하여 赤松子를 따라 隱居하며 辟穀으로 神仙術을 배웠음. 滄州는 강 가운데의 섬을 말하는데 隱士가 거주하는 곳을 비유함.
- 70) 隱容은 숨기고 감지함을 말함.

貧⁷²⁾, 沒齒無恨.⁷³⁾ 其有山精木魅, 雄虺猛獸,⁷⁴⁾ 以驅之四荒⁷⁵⁾, 磔裂⁷⁶⁾原野, 使影跡絕滅, 不干⁷⁷⁾戶庭, 亦遣清風掃門, 明月侍坐. 此乃養賢之心, 斯亦勤矣.⁷⁸⁾ 孟子孟子, 無深見責耶? 明年青春, 求我于此巖也.

2) 「與韓荊州書」번역 및 주석

「한형주에게 보내는 글」

저 이백은 천하의 논객들이 모여 “평생 동안에 만호의 관작에 봉해지는 것은 소용없고, 다만 韓荊州에게 알려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까

-
- 71) 資는 供給함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培養함을 말함. 輔는 도움을 받음, 物色은 경치, 文章은 文采를 각각 말함.
- 72) 中貧의 中은 몸이 傷함, 貧은 다하다는 뜻으로 中貧이란 몸이 衰落해졌음을 말함. 『文選』 卷5 左思 「吳都賦」에 “시내가 더럽혀지자 전부 깨끗하게 하였다”(川瀆爲之中貧)라고 하였음. 煙花는 華麗를 뜻하여 烟花中貧은 壽山의 靈氣가 李白과 같은 어진 선비를 길러냈으나 지금은 몸이 衰落해졌음을 말함.
- 73) 沒齒는 終身의 뜻임. 『論語』 「憲問」에 “관중의 인품을 물으니. 대답하길, ‘이 사람은 백씨의 병읍 삼백 戶를 빼앗았는데, 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평생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問管仲, 曰人也奪伯氏駢邑三百, 飯蔬食, 沒齒無怨言)라고 하였음. 沒齒無怨이란 조금도 원망하지 않음을 말함. 沒齒無恨: 意謂毫不後悔.
- 74) 山精은 깊은 산속에 사는 요괴를 말함. 『淮南子』 「汜論訓」에 “산에서 梟陽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괴상하게 여긴다. 건문이 적어 만물을 아는 것이 천박하기 때문이다. 천하의 괴물은 성인만이 보는 것이다”(山出梟陽, 人怪之, 聞見鮮而識物淺也. 天下之怪物, 聖人之所獨見)라고 하였는데, 고유의 주에 “梟陽은 山精이다. 형체가 사람과 같고 키가 크며 얼굴은 검고 몸에 털이 나있으며 발의 발꿈치가 반대로 있는데 사람을 보면 웃는다”(梟陽, 山精. 人形, 長大, 面黑色, 身有毛, 足反踵, 見人而笑)라고 하였음. 木魅는 오래된 나무가 변해서 된 妖魅를 말함. 南朝 宋 鮑照 「蕪城賦」에 “고목에 요괴와 산에 귀신이 있네”(木魅山鬼)라고 하였고, 이백의 「過四皓墓」에 “고목 요괴가 바람에 소리 지르며 다니고, 산 귀신은 비에 휘파람 불며 돌아다니네”(木魅風號去, 山精雨嘯旋)라고 하였음. 雄虺는 전설상의 큰 毒蛇를 뜻하는데, 楚辭 「招魂」에 “응ھے는 머리가 아홉 개이고 머리가 아홉인 독사는, 여기저기를 번개처럼 빠르게 오가며, 사람을 집어삼켜 주린 배를 채우네”(雄虺九首, 往來倏忽, 吞人以益其心些)라고 하였고, 『文選』 卷5 左思 「吳都賦」에도 “응ھے는 머리가 아홉 개나 있다”(雄虺之九首)라고 하였음.
- 75) 四荒은 八荒을 말함.
- 76) 磔裂은 사지와 몸통, 즉 신체가 찢어짐을 말함.
- 77) 干은 방해함 혹은 침범함을 말함.
- 78) 勤은 酬勞의 뜻으로 보답을 말함.

답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周公의 풍모를 지니시어 몸소 음식을 토해내고 머리를 감싸 쥐면서까지 인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아끼시니, 천하의 인걸들이 달려와 공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龍門에 오르면 명성은 열 배나 되니, 아직 세상에 쓰이지 않은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공에게 와서 명성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공께서 부귀하다해서 교만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을 홀대하지 않으신다면, 3천 명의 식객 가운데 毛遂라는 사람이 있었듯이 쓸 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이백에게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해주신다면, 제가 바로 모수가 되겠습니다.

저 이백은 隴西 지방의 한 서민으로 초나라와 한나라 사이를 유랑하면서 지냈습니다. 열다섯 살 때는 검술을 좋아하여 널리 지방관들에게 천거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서른 살 때는 글 짓는 것을 배워 조정의 고관대작들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키는 7척이 못되었지만 마음만은 만 명도 당해낼 만한 했습니다. 왕공대신들이 저의 절개와 의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저의 마음가짐과 행적입니다. 어찌 감히 공께 모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공의 문장은 천지신명 같고 덕행은 천지를 움직이며 붓은 조화를 부리는 듯하고 학문은 하늘과 인간의 심오한 도리를 모두 窮究하셨습니다. 공께서 마음과 얼굴을 여시고 저의 인사를 거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훌륭한 연회로 맞이해주셔서 제가 맑은 논의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신다면, 매일 많은 글로 저를 시험해보신다 하더라도 재주가 뛰어난 저는 금방 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공을 문장을 관할하는 분이요, 인물의 경중을 달아보는 저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공께서 품평해주신다면 곧바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이백이 만나 뵙기 위해 들어갈 계단 앞의 한 자 남짓한 장소를 아껴 제가 눈썹을 치켜세우고 의기양양해하며 청운의 큰 뜻을 펼치도록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옛날 王子師는 豫州刺史가 되어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荀爽을 불렀고, 수레에 내려서는 孔融을 불렀습니다. 山濤는 冀州刺史가 되어 30여 명의 인재를 발탁했는데, 그 가운데 侍中尙書가 된 사람이 있어 先代에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공께

서도 嚴武를 추천하셨는데, 그는 비서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崔宗之, 房習祖, 黎昕, 許瑩 등을 추천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다는 평판으로 유명했고, 어떤 사람은 청렴결백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 이백은 이 사람들이 공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스스로 돌아보며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에 감격했으며, 공의 진심을 어진 선비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쫓지 않고 名士인 공께 제 몸을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저를 써주신다면, 감히 나아가 미천한 몸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堯舜과 같은 聖인이 아닐진대, 누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치 계략을 가지고 있다한들, 어찌 이를 과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장을 지은 것은 두루마리를 이를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이 문장들을 공께 보여드려 공의 귀와 눈을 더럽히거나 보잘것없는 재주가 대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천한 저의 글을 보여주신다면, 紙筆과 글을 받아 적을 사람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물러나 한가하게 난간이나 청소하고 문장을 다듬어 깨끗하게 써 올리겠습니다. 옛날 靑萍의 검과 結緣의 玉과 같은 명품은 薛燭과 卞和 때문에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모쪼록 미천한 저를 추천하시고 칭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공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與韓荊州書⁷⁹⁾

白聞天下談士⁸⁰⁾相聚而言曰, “生不用萬戶侯⁸¹⁾, 但願一識韓荊州.” 何令人之

79) 『新唐書』 卷118 「韓朝宗傳」에 韓朝宗은 처음에는 左拾遺를 역임했고, 후에 荊州刺史를 지냈으며, 開元 22년에 처음으로 10개의 探訪使를 설치했는데, 襄州刺史로 山東東道를 겸직했고, 임지의 관리가 부역을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행한 죄에 연좌되어 洪州刺史로 폄적되었고, 天寶 初에 朝廷에서 그를 불러 京兆尹이 되었다가 長安에서 나와 高平의 太守가 되었으며, 吳興의 別駕로 폄적되었다가 죽었음. 후진들을 알아보고 천거하길 좋아하여 일찍이 崔宗之, 嚴武를 추천하여 당시의 선비들은 모두 그에게 귀의하고 그를 중히 여겼다고 하였음. 이 문장은 李白이 韓荊州에게 자신을 薦舉해 달라는 편지임.

80) 談士는 論客을 말함. 孔融의 「與曹操論盛孝章書」에 “천하의 논객은 명성에 의지한다”(天下談士, 依以揚聲)라고 하였음.

81) 萬戶侯는 食邑이 萬戶인 封侯를 말하는데 신분이 顯貴함을 비유함.

景慕⁸²⁾一至於此耶?豈不以有周公之風, 躬吐握之事⁸³⁾, 使海內豪俊⁸⁴⁾奔走而歸之, 一登龍門⁸⁵⁾, 則聲譽十倍! 所以龍盤鳳逸⁸⁶⁾之士, 皆欲收名定價⁸⁷⁾於君侯⁸⁸⁾, 願君侯不以富貴而驕之, 寒賤而忽之, 則三千賓中有毛遂, 使白得穎脫而出⁸⁹⁾, 卽其人焉. 白隴西布衣, 流落楚漢⁹⁰⁾. 十五好劍術, 遍于諸侯. 三十成文

- 82) 景慕는 존경을 뜻함.
- 83) 『韓詩外傳』에 “周公이 말하길 ‘나는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동생이며, 成王의 숙부다. 또 한 천하의 재상노릇을 하면서 나는 천하 사람들을 경시하지 않았다. 한 번 목욕하는데 세 번 머리를 쥐었고, 한 끼 밥을 먹는데 세 번 음식을 토해냈다. 이것은 천하의 선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고 하였음. 司馬遷 『史記』 『魯世家』에도 ‘吐哺握髮의 고사가 보이는데, 후세에 ‘吐握’은 어진 선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비유하는데 사용함.
- 84) 재주와 지혜가 걸출한 인재를 말함. 賈誼의 『過秦論』에 秦始皇은 “선왕의 법도를 폐지하고 제자백가의 책을 불살라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으며, 이름난 성지를 부수고 재주와 지혜가 걸출한 인재를 죽이고, 천하의 무기를 거두어 함양에 모았습시다”(廢先王之道, 焚百家之言, 以愚黔首, 墮名城, 殺豪俊, 收天下之兵, 聚之咸陽)라고 하였음.
- 85) 『世說新語』 『德行』에 “李元禮는 풍모가 남보다 뛰어나고 품성이 단정하여 그 명성이 높았는데, 천하에 유가의 禮敎를 전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여겼다. 후배 선비로서 그의 처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된 자가 있으면 ‘용문에 올랐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李元禮風格秀整, 高自標持, 欲以天下名敎是非爲己任. 後進之士, 有升其堂者, 皆以爲登龍門)라고 하였음. 李元禮는 李膺을 말함. 『後漢書』 권67 『黨錮列傳』의 『李膺傳』에 “李膺은 홀로 식견이 뛰어나 그 명성이 높았다. 선비들은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자가 있으면 ‘용문에 올랐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膺獨持風裁, 以聲名自高. 士有被其容接者, 名爲登龍門)라고 하였음. 李膺의 注에 “물고기에 비유하였다. 용문은 황하의 상류로 지금의 강주 용문현에 있다”(以魚爲喻也. 龍門, 河水所下之口, 在今絳州龍門縣)라고 하였음. 辛氏의 『三秦記』에 “河津은 일명 용문이라고 하는데, 강물이 험난해 통행하기가 어려워 물고기나 자라 등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었고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는 용문 아래 수천 마리나 모여 있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용이 되었다”(河津一名龍門, 水險不通, 魚鱉之屬莫能上, 江海大魚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上則爲龍也)라고 하였음.
- 86) 龍盤鳳逸은 재야에 묻혀있거나 낮은 벼슬자리에 있음을 비유함.
- 87) 收名定價은 名聲을 얻음이란 뜻.
- 88) 君侯는 신분이 尊貴한 사람에 대한 존칭. 여기에서는 韓朝宗을 가리킴.
- 89) 『史記』 卷76 『平原君虞卿列傳』에 “평원군이 초나라에 가서 함중하려고 식객과 문하에서 용기와 힘이 있고 문무를 겸비한 자 20명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19명을 얻었다. 毛遂라는 자가 앞에 나아가 자천하자, 평원군이 말하길, ‘현명한 선비의 처세란 비유하자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도 같아서 당장에 그 끝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나의 문하에 있는 지 오늘까지 3년이 되었지만 좌우에서 칭찬하여 말하는 것이 없었고 나도 들은 적이 없으니 이는 선생에게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모수가 말하길, ‘저는 오늘에서야 선생의 주머니 속에 있기를 청합니다. 저를 일찍부터 주머니 속에 있게 했다면 자루까지도 벗어나났을 것이니 아마도 그 끝만 보이는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음. ‘穎脫而出’은 재주가 뛰어난 선비는 만약 기회만 얻으면 반드시 자신의

章, 歷抵卿相⁹¹). 雖長不滿七尺, 而心雄萬夫, 王公大人許與氣義. 此疇曩⁹²)心跡, 安敢不盡於君侯哉?

君侯制作侔神明⁹³), 德行動天地, 筆參造化, 學究天人⁹⁴). 幸願開張心顏, 不以長揖見拒⁹⁵). 必若接之以高宴, 縱之以清談⁹⁶), 請日試萬言, 倚馬可待⁹⁷). 今天下以君侯爲文章之司命, 人物之權衡⁹⁸), 一經品題, 便作佳士. 而君侯何惜階前盈尺之地⁹⁹), 不使白揚眉吐氣, 激昂青雲耶?

昔王子師爲豫州, 未下車卽辟荀慈明, 既下車又辟孔文學¹⁰⁰). 山濤作冀州,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임.

- 90) 隴西는 옛 지명으로 秦나라 때 설치되었고, 狄道, 즉 지금의 甘肅 臨洮에서 다스렸음. 李白은 자칭 十六國 시대 때 涼武昭王 李暹의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李暹은 隴西 사람임. 李白은 본래 蜀 땅 사람인데, 隴西라고 말한 것은 조상의 名聲을 자랑삼아 말한 것임. 布衣는 平民을 말하며, 楚漢은 당시에 李白의 집은 지금의 湖北省의 安陸에서 있었고 襄陽, 江夏等地를 왕래하였는데 이 지역을 楚漢이라고 한 것임.
- 91) 曆은 두루 혹은 널리, 抵는 알현하다, 卿相은 中央 朝廷의 高級官員을 뜻함.
- 92) 疇曩은 지난날을 뜻함.
- 93) 制作은 文章의 著述을 말함. 侔는 같음을 말함. 東漢 때 崔瑗의 「張平子碑」에 “술수는 천지를 궁구하였고, 문장은 천지창조의 조화와 같다”(數術窮天地, 制作侔造化)라고 하였음.
- 94) 參은 參與의 뜻. 造化는 自然의 創造를 말하며, 天人은 天道와 人道를 말함. 『梁書』卷49 「鍾嶸傳」에 “문장으로 달과 해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학문을 배워서 하늘과 인간을 궁구하였다”(文麗日月, 學究天人)라고 하였음.
- 95) 長揖은 서로 만났을 때 손을 맞잡는 일종의 평등한 예절.
- 96) 清談은 漢末 魏晉 때 선비들이 高談峻論하며 人物을 평가하거나 玄理를 탐구하는 것을 말함.
- 97) 倚馬可待는 말에 기대고서도 글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문장을 짓는데 구상이 敏捷하여 문장을 빨리 지음을 비유함. 東晉 때 袁宏이 桓溫을 따라 北征하는데 檄文을 쓰라는 命을 받고 말에 기대어서 문장을 짓는데 손이 붓을 잡기도 전에 이미 문장 구상이 끝나 문장이 금방 지어졌고 문장도 아주 뛰어났다고 함.
- 98) 司命은 원래는 神의 이름인데 사람의 壽命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文章의 優劣을 판정하는 권위를 가리킴. 權衡은 저울대를 말하는데 인물을 평가하는 권위를 비유함.
- 99) 惜階前盈尺之地는 공의 집 앞에서 나 이백을 만나주지 않음을 애석함을 뜻함.
- 100) 王允은 자가 子師이고, 太原의 祁 땅 사람인데, 『後漢書』卷66 「王允傳」에 “中平 元년에 황건적이 일어나자 특별히 豫州刺史에 발탁되었다. 荀爽, 孔融 등을 불러서 벼슬을 주었다”(中平元年, 黃巾賊起, 特選拜豫州刺史. 辟荀爽孔融等爲從事)라고 하였음. 『晉書』卷56 「江統傳」에 東海王 越이 兗州牧이 되어 江統을 別駕에 임명하여 州의 일을 맡기려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길, “옛날 王子師가 豫州刺史가 되어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荀慈明을 불렀고, 수레에서 내렸을 때는 孔文學를 불렀다”(昔王子師爲豫州, 未下車, 辟荀慈明, 下車, 辟孔文學)라고 하였음. 慈明은 荀爽의 字이고, 荀爽은 潁川 사람으로, 王允과 함께 모의하여 董卓을 죽였음. 文學는 孔融의 字로, 孔融은 北海, 지금의 山東 樂縣의 太守를 지냈

甄拔三十餘人, 或爲侍中尙書¹⁰¹⁾, 先代所美. 而君侯亦薦一嚴協律, 入爲秘書郎, 中間崔宗之房習祖黎昕許瑩之徒¹⁰²⁾, 或以才名見知, 或以清白見賞. 白每觀其銜恩撫躬¹⁰³⁾, 忠義奮發, 以此感激, 知君侯推赤心于諸賢腹中¹⁰⁴⁾, 所以不歸他人而願委身國士¹⁰⁵⁾. 儻¹⁰⁶⁾急難有用, 敢效微軀.

且人非堯舜, 誰能盡善? 白謨猷籌畫, 安能自矜¹⁰⁷⁾? 至於制作, 積成卷軸, 則欲塵穢視聽¹⁰⁸⁾, 恐雕蟲小技¹⁰⁹⁾, 不合大人. 若賜觀芻蕘¹¹⁰⁾, 則請給紙墨,

으므로 孔北海라고 불렀으며 후에 曹操에게 피살되었음.

- 101) 『晉書』卷43 「山濤傳」에 “山濤가 冀州刺史를 맡았고 寧遠將軍까지 보태졌는데, 冀州의 풍속이 야박하여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산도가 은거하고 있거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억울한 인재들을 발탁하였고, 어진 인재들을 찾아가 만났다. 어진 인재 30명을 불러 모았는데 모두 세상에 명성을 날렸다.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였고 풍속도 바뀌었다”(出爲冀州刺史, 加寧遠將軍, 冀州俗薄, 無相推轂, 濤甄拔隱屈, 搜訪賢才, 旌命三十餘人, 皆顯名當時. 人懷慕尙, 風俗頗革)라고 하였음. 山濤는 字가 巨源이고, 西晉의 名士로 竹林七賢의 한 사람이었음.
- 102) 崔宗之는 이름이 成甫로 李白의 친구이며 開元 年間에 일찍이 起居郎, 尙書禮部員外郎, 禮部郎中, 右司郎中, 侍御史 등을 역임하였고, 齊國公에 봉해졌으며 孟浩然, 杜甫와도 왕래하였음. 房習祖, 黎昕과 許瑩은 생애가 알려진 바 없지만, 黎昕은 일찍이 拾遺를 지냈고 王維와 교류하였음. 『新唐書』卷48 「百官志」에 “太常寺에는 協律郎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正8品 이상으로 律呂를 관장한다”(協律郎二人, 正八品上, 掌和律呂)라고 하였음. 嚴協律은 陝西 華陰 사람 嚴武를 말함. 그의 字는 季膺이고, 일찍이 韓朝宗에 의해 薦舉되어 入朝하였고 음악을 관장하는 協律郎이 되었으므로 ‘嚴協律’ 이라 칭했음. 후에 嚴武는 劍南節度使와 成都尹을 맡았음. 杜甫가 그와 절친한 사이여서 그의 초청으로 成都에서 지냈음. 秘書郎은 宮中의 도서를 관장하는 관직임.
- 103) 撫躬은 감격함을 말함.
- 104) 『後漢書』 「光武本紀」 “소왕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을 심어주었다”(蕭王推赤心置人腹中)라고 하였음. 蕭王은 光武本 劉秀를 말함.
- 105) 國士는 나라 가운데 걸출한 인물을 말함.
- 106) 儻은 “倘”과 같음.
- 107) 謨猷는 계략을 말함. 『說文解字』에 “모는 책략을 논의하다”(謨, 議謀也)라고 하였고, 『尙書』 「周書」 「君陳」에 “그대에게 좋은 계획이 좋은 생각이 있거든, 곧 들어가 안으로 그대 임금에게 아뢰고, 그대는 밖에서 그것을 따라 실행하도록 하오”(爾有嘉謀嘉猷,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라고 하였음.
- 108) 塵穢視聽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작품을 읽어보아 달라고 청하는 겸손의 말임. 『三國志』 「陸凱傳」에 “천자의 귀를 더럽히다”(穢塵天聽)라고 하였음. 穢는 더럽힌다는 뜻이고, 天聽은 천자의 귀를 말함.
- 109) 雕蟲小技는 西漢 揚雄 『法言』卷2 「吾子」에 “어떤 사람이 문기를, ‘그대는 소년 시절부터 賦 짓기를 좋아하셨습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소. 소년들이 문장을 지을 때 지나치게 字句의 수식에만 얽매어 연습을 하는 것과 같았소’라고 하면서 ‘成人은 하지 않는 것이오’라고 말하였다”(或問, 吾子少而好賦, 曰然. 童子雕蟲篆刻, 俄而曰, 壯夫不爲)라고

兼之書人，然後退掃閑軒，繕寫呈上。庶青萍結綠，長價於薛卞之門¹¹¹⁾。幸惟下流，大開獎飾，惟君侯圖之。

〈參考文獻〉

『論語』,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孟子』,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周禮』,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詩經』,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尚書』,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春秋公羊傳』,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孝經』, 『十三經注疏』本, 藝文印書館, 1984.
 陳鼓應, 『老子註譯及評介』, 北京: 中華書局, 1994.
 郭慶藩, 『莊子集釋』, 臺北: 唯一書業中心, 1975.
 劉文典 撰, 『淮南鴻烈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9.
 司馬遷 撰, 『史記』, 臺北: 新陸書局, 1967.
 班固 撰,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75.
 范曄 撰,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75.
 陳壽 撰,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75.

하였음.

110) 芻는 마소가 먹을 풀을 베는 사람, 蕘는 나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여, 芻蕘는 草野에 묻혀 사는 사람이나 자신의 작품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로 여기에서는 후자의 뜻임.

111) 陳琳 「答東阿王箋」에 “공은 키가 큰 세상의 인재로 青萍劍을 쥐고 있는데 그 검은 干將이 만든 기물이오”(君侯體高世之才, 秉青萍、干將之器)라고 하였음. 青萍은 劍의 이름임. 『戰國策』 「秦策」(三)에 “신이 듣건대 주나라에는 지액, 송나라에는 결록, 양나라에는 현려, 초나라에는 화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보물은 공장이 감정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데도 천하의 명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臣聞周有砥厄, 宋有結綠, 梁有懸黎, 楚有和璞. 此四寶者, 工之所失也, 而爲天下名器)라고 하였음. 結綠은 玉의 이름임. 李白은 이런 칼과 옥에 자신의 문장을 비유하여 자신의 문장이 불만함을 자부하였음. 『越絕書』에 “식객 가운데 좋은 칼을 식별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薛燭입니다”라고 하였음. 『新序』에 “형주 사람 卞和가 옥 덩어리를 얻었다”라고 하였음. 薛卞은 薛燭과 卞和를 말하는데, 두 사람 모두 춘추시대 때 월나라 사람이었다. 설혹은 좋은 검을 알아볼 줄 알았고, 변화는 아름다운 옥을 잘 감정했음. 李白은 이 두 사람을 韓朝宗에 비유했고, 동시에 자신은 좋은 칼과 아름다운 옥에 비유했음.

- 劉昫撰,『舊唐書』,北京:中華書局,1975.
 歐陽修撰,『新唐書』,北京:中華書局,1975.
 房玄齡撰,『晉書』,北京:中華書局,1975.
 酈道元著,史念林外注,『水經注』,華夏出版社,2006.
 何建章注釋,『戰國策注釋』,中華書局,1990.
 김근 역주,『呂氏春秋』,민음사,1994.
 王先慎撰,『韓非子集解』,世界書局,1980.
 洪興祖撰,『楚辭補注』,長安出版社,1984.
 蕭統選,李善註,『文選』,商務印書館,1974.
 郭茂倩編撰,『樂府詩集』,上海古籍出版社,1998.
 劉勰著,周振甫注,『文心雕龍注釋』,里仁書局,1984.
 遂欽立輯校,『先秦漢魏南北朝詩』,學海出版社,1984.
 揚雄撰,韓敬注,『法言州』,中華書局,1992.
 黃節註,『鮑參軍詩註』,藝文印書館,1977.
 朱金城箋校,『白居易集箋校』,上海古籍出版社,1998.
 『全唐詩』,北京:中華書局,1992.
 瞿蛻園朱金城校注,『李白集校注』,上海古籍出版社,1980.
 王琦注,『李太白全集』,中華書局,1995.
 牛寶彤主編,『李白文選』,學苑出版社,1989.
 詹鍔,『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百花文藝出版社,1996.
 이영주임도환신하윤 역주,『이태백시집』,학고재,2015.
 황선재 역주,『이태백명시문선집』,박이정,2013.
 謝育爭著,『李白散文研究』,文津出版社,2012.
 광말약, 임효섭, 황선재 옮김,『李白과 杜甫』,까치,1994.
 이병주 지음,『두보: 시와 삶』,민음사,1993.
 楊倫箋注,『杜甫鏡銓』,上海古籍出版社,1998.
 段成式撰,杜聰校點,『酉陽雜俎』,齊魯書社,2007.

<Abstract>

Li Bo was extraordinary talent in writing poems and a genius who put down his

feelings in poems. He wrote several letters to the Governors of Provinces, as Anzhou (安州), Jingzhou (荊州) asking for a job, but without success. He wrote letters expressing his strong hope of recommending himself for a higher position to the Emperor Xuanzong (玄宗). He presented his letter *On Behalf of Shou Mountain Scolding Meng Shaofu* (『代壽山答孟少府移文書』) to his friend, and *Letter to the Governor of Jingzhou* (『與韓荊州書』) to the Han Zhaozong. He was dominated by an ambition to get himself appointed to a government post and serve the country. Li Bai declares his life ideal of “seclusion after success” to the world. The application of the third person expression of replacing himself by the Shou Mountain both the close relevance with *Yi Wen from North Mountain* (『北山移文』) of Kong Zhigui (孔稚圭) from Qi (齊) in the Southern Dynasty.

關鍵詞: 李白, 自薦, 書信, 功成身退, 隱逸, 出仕, 孟少府, 韓荊州

이 논문은 2016년 1월 8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